

단풍취의 생육 및 종자 특성

김상룡, 최수용, 한영한, 신희정, 박철호, 이기철¹⁾, 장광진²⁾

강원대학교 식물응용과학부, ¹⁾춘천교육대학교, ²⁾한국농업전문학교

단풍취의 식용자원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자생지인 연엽산 지역에서 자란 단풍취와 이식하여 포장에서 자란 단풍취 30주를 각각 형태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생육지를 달리하는 단풍취의 형태적 특성은 초장과 엽수, 엽병장, 화수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초장은 자생지에서는 최저 34.6cm, 최고 56.2cm, 평균 초장 47.1cm이었으며, 포장에 이식 식재한 것은 최저 31.2cm, 최고 65.8cm, 평균 초장 43.0cm이었다.

엽수는 자생지에서 평균 4.8매, 포장에 이식한 것은 5.3매로 포장에 식재한 것이 약간 많게 나타났다. 엽장은 자생지에서 6.8cm, 포장에서 6.8cm로 거의 같게 나타났으며, 엽폭도 자생지에서 7.80cm, 포장에서 7.81cm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엽병장은 자생지에서 7.3cm, 포장에서 9.12cm로 나타났으며, 화경장은 자생지에서 26.1cm, 포장에서 25.4cm로 자생지가 다소 길었다. 꼬투리수는 생육지별로 각각 30주에 대하여 자생지에서 자란 단풍취는 평균 8.1개, 포장에서 자란 단풍취는 6.4개로 자생지 단풍취가 2개 정도 더 많이 개화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자생지가 포장에 비하여 생육환경이 보다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종자는 꽃이 진 후 맺힌 70개의 꼬투리를 조사하여 결실한 종자수를 조사한 결과 꼬투리당 1.2개의 종자결실율을 나타냈다. 수분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라핀 봉지를 씌운 시험구에서는 1주당 0~2개의 종자만이 결실되어 단풍취는 주로 타가수정에 의해 결실됨을 알 수 있었다. 결실된 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종자의 길이는 100립을 선정하여 측정해 본 결과 가장 긴 것이 11.2mm 이고, 가장 짧은 것은 7.9mm였으며, 평균 길이는 9.82mm였다. 종자의 폭은 가장 큰 것이 2.3mm이고, 가장 작은 것은 1.0mm이며, 평균 1.35mm였다. 종자의 무게는 가장 무거운 것이 17mg이었고 가장 작은 것은 10mg이었으며 평균 무게는 12.7mm이었다.